

# [시론] 그린리모델링 실천으로 탄소중립 달성하자

✎ 박진철 교수 | ⌚ 승인 2023.01.23 05:00 | 📄 15면

## 해외, 세금감면·인센티브 등 민관 협력 지원 앞장



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계묘(癸卯)년 새해가 시작됐다. 계묘(癸卯)의 의미는 검은 토끼로 토끼는 예로부터 지혜와 번성 및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계묘(癸卯)년에는 큰 사고와 사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코로나 팬데믹도 드디어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 역사에는 전쟁과 전염병이 끊이지를 았았다고 하는데 전염병을 살펴볼 때 지난 2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이 연이어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는데 이는 여러 원인중에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고, 특히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건물에서의 탄소중립 일환으로 10년 이상된 전국의 어린이집, 보건소, 요양원 등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공공 노후 건물들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0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써 특히, 국내 건축물중 노후건축물(10년 이상~35년 미만)의 비중이 전체의 60%(연면적 기준)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시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정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린리모델링이 인테리어공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노후된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 설비적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여 특히 에너지절감 효과를 챌린지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해왔음에도 아직도 그 반응은 미지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소수의 어린이집 원장, 선생 및 학부모들이 그린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어 만족도가 좋다는 평가를 내려 주어 위안감을 갖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이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 그런지 에너지 절감에 대한 호응도는 아직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측한다.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의 건물에너지절약에는 건축주나 운영자들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감면과 인센티브 등의 제도로써 지원을 함으로써 민-관이 화합하여 많은 건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너무 부러울 뿐이다.

계묘(癸卯)년 새해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것이 바뀌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비용이 대폭 인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ESG 실천을 기업의 최대 필수적 홍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ESG 실천에는 친환경 즉, 그린이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계묘(癸卯)년 새해부터라도 그린리모델링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박진철 교수** news@kmeccnews.co.kr